

2026/08/27 (목) 회의록

(1) 회의 성원

비상대책위원장: 재적 인원 28명 중 출석 인원 21명으로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논의 안건 - 2026 평택대학교 총학생회 체육대회 논의의 건

비상대책위원장: 체육대회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착오로 위원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회의가 열리게 된 상황을 설명 드리고, 그 다음 문제점에 대해서 별첨 자료와 함께 설명드린 후에, 질문과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열리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운위 특방에 종목 투표를 올렸는데, 사전에 얘기됐던 종목 선정 방식과 다르다는 문의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난 5월 7일 중운위 회의에서 체육대회와 대동제 일정을 정했었는데, 그때 25학년도 체육대회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대동제 시기가 가까워진 것도 고려해서 종목을 축소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종목에 대해서는 따로 회의로 논의해보자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목을 축소한다는 것 자체는 확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종목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 방식에 대해서 저희 비대위 내부 회의에서 혼선이 있었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 방식에 대해서만 다시 의견을 받는 것으로 바뀌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목 수 자체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종목 수에 대한 부분도 원래 종목 선정 회의에서 함께 논의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방향이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 역시 그 말씀에 동의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5학년도 체육대회 건의사항, 두 번째는 25학년도 대비 축소된 예산, 세 번째는 대동제와 시기가 근접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체육대회 건의사항은 5월 7일 회의에서 이미 말씀드렸고, 예산 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얘기입니다. 위원분들은 별첨 1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는 2학기에 체육대회와 대동제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25학년도 총 예산은 오천이백구십만칠천구백육십사원이었고, 26학년도 2학기 예산 수입은 평균적으로 잡아서 약 삼천칠백사만천이백구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비대위 예산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 예산입니다. 25학년도 대동제 지출을 보시면, 저희 예산에서는 삼천이백이십오만원, 그리고 학교에서 약 1억 원을 지원받아서 총 일억삼천이백이십오만원의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26학년도 대동제 학비 지원금은 절반으로 줄어서 오천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제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적어도 비대위 예산이 작년보다는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른 행사들의 예산을 꽤 많이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작년 체육대회 예산이었던 팔백오십만원을 약 백만원으로 줄여서 대동제 쪽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백만원으로 진행하려면, 체육대회 규모가 작아지는 건 사실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2는 지금 수정된 상태이니, 새로 올린 파일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목 논의가 늦어지면서 일정도 함께 수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원래 별첨 2에 있던 것처럼 9월 1일부터 16강을 진행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종목 5개를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종목을 5개로 그대로 가려면, 원래 별첨 2 일정대로 남은 8월 4일 동안 학과 및 연합별 출전 명단, 대진표 구성, 시합 시간 선택까지 다 마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별첨 2에서는 3종목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에서 종목 수와 종목 선정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후 8월 27일부터 9월 3일 정기회의 전까지 학과 및 연합별 출전 선수 명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월 3일 정기회의에서 대진표를 구성한 뒤에, 대관이 완료된 시간표 파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대진표 확인하신 후에 상대팀과 논의해서 종목별 시합 시간을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한 설명은 마쳤으며, 이에 대해서 질문 및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홍보학과 학생회장 : 만약 축소된 예산으로 진행한다면, 예를 들어 축구 하나만 하게 되면 학과끼리 한 챔스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 : 본인도 체육대회 정말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하나, 대동제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대동제와 체육대회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대동제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광고홍보학과 학생회장 : 저희 학과는 1학년만 57명이며, 전 학년을 다 합치면 100명이 넘습니다. 체육대회 종목 하나씩만 출전하면 인원수가 넘치므로 참여 희망자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늘려달라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 : 네, 오늘 종목 수와 종목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3개로 줄인 것은 확정이 아니므로 확정 후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므로 종목 4개, 3개 중에서 투표를 받고 나서 종목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으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4개를 원하는 학과는 1번, 3개를 원하는 학과는 2번을 20분까지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4개 : 21

3개 : 0

투표결과 : 4개

비상대책위원장 : 과반수에 따라 종목 4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하는 종목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취합해서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투표는 중복투표 가능합니다.

광고홍보학과 학회장 : 줄다리기를 빼고 여자2, 남자2 종목 진행 건의 드립니다.

스마트콘텐츠학과 학생회장 : 혼성종목을 원합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 : 발야구, 피구, 축구, 농구 원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 : 혼성종목 포함여부가 결정되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편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 : 혼성종목에 포함되는 종목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계주가 다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18:20 국제무역행정학과 학생회장 입장)

비상대책위원장 : 줄다리거나 발야구를 혼성으로 할지 고민중입니다. 계주는 축구와 장소가 겹치기도 하고, 타이트한 일정 관계상 일정을 짜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혼성종목을 진행할 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혼성종목 포함은 1번, 혼성종목 미포함은 2번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30분까지 드리겠습니다.

투표

혼성종목 포함 : 8

혼성종목 제외 : 14

투표결과 : 혼성종목을 제외한 남자 2종목, 여자 2종목

비상대책위원장 : 혼성 종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모든 분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pc방 대관 및 일정상 e스포츠는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자 2종목, 남자2종목으로 확정이 났기 때문에, 편하게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6시 40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 : 여자종목으로 발야구와 피구를 남자종목으로 축구와 농구를 희망합니다.

투표

찬성 : 22

반대 : 0

투표결과 : 여자종목(발야구, 피구), 남자종목(축구, 농구)

(3) 논의 안건 - 2026 평택대학교 대동제 컨셉 논의의 건

비상대책위원장 :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10월에 진행될 대동제 컨셉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각 학과마다 겹치지 않기 위하여 미리 알아 둔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 같습니다. 정리가 되면 바로 중운위 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카톡으로 학과 컨셉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학과 학생회장 : 대동제에 관해서는 다음주에 회의하나요?

비상대책위원장 : 대동제에 관한 내용은 다다음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